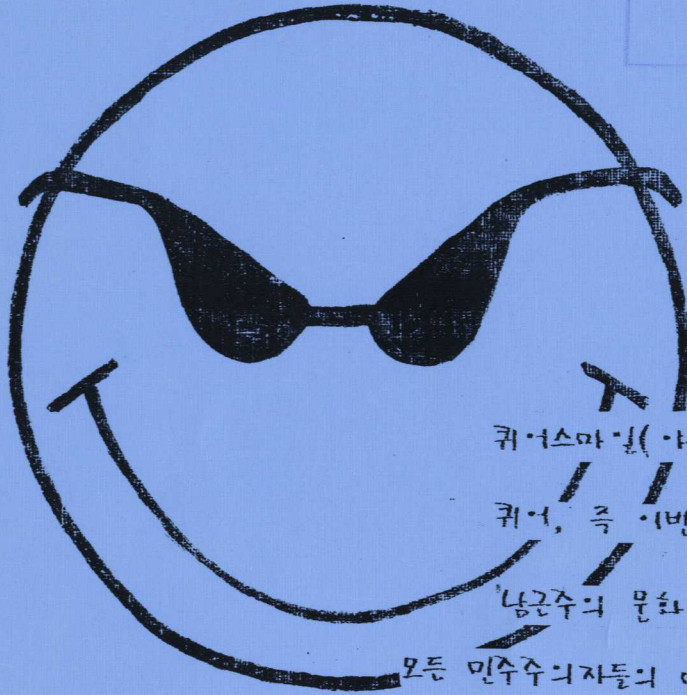


'96열린대학 96열린대학96열린대학96열린대학96열린대학96열린대학

인원		표상
종류		
	All	34



표지설명

퀴어스마일(아름다운 미소?)

퀴어, 즉 이반의 상징으로

남근주의 문화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주의자들의 마스코트이다.

우우

학생회관 교수세미나실

17일 목요일 5시

시·대 공~감 행·복·한 반~란

재 12대 총·여·학·생·회

홍홍

또여나의사랑동성애또여나의사랑동성애또여나의사랑또여나의 **동성애**

글순서

2쪽

♣ 총여학생회장 인사말 ♣

3쪽

우동생애의 역사 우

11쪽

♣ 여성간의 사랑, 자매애, 그리고 성 ♣

14쪽

우 당신의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우

16쪽

♣ 만화-Daddy's Roommate ♣

19쪽

우 이성애자와의 인터뷰 우

22쪽

♣ 서울시립대 동성애자 모임 인사말 ♣

『열린대학-동성애 포럼』을 준비하며 - 인사드립니다.

사회과학관의 다행이기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며 완연한 가을임을 느낍니다. 집행부들이 가을바람을 쐬고 싶어서도 동성애 포럼때문에 모른 척해서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드디어 17일에 『열린대학 두번째 이야기... 동성애에 관한 포럼』이 열립니다.

동성애 포럼을 준비하면서 “총여학생회가 왜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총여학생회는 동성애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막을 권리는 없지 않을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 속에서 비이성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들의 대자본이 짖겨지는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소수자들의 이야기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학생회는 그들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다움에 의해 고통받는 여성들의 삶과 연관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온전한 눈으로 그들의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동안 스티커설문조사나 백대자보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며 관심을 보여준 여러 학우들에게 감사합니다. 17일 늦은 6시 교수세미나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잘 보시고요, 건강하세요.

제12대 총여학생회장 이현희

동성애의 역사



성애를 비롯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이 인간 사회에서 총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동성관계의 역사만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19세기 이전까지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죄악이나 범죄로 취급된 동성간의 성행위를 일컫던 말들은 그 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나 유형을 나타낸다는 관념이 분명하게 등장한 것은 오로지 이 시기뿐이었다.

동성관계 간의 문제는 가족의 역사와 관련지어 바라보아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동성애 문제도 풀 수 없다. 모든 계급 사회에서 가족은 성적인 순종이 실행되는 주요 제도였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 및 가족이 맺는 생산 관계는 서로 다른 생산방식을 거치면서 매우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특히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등장은 복합적으로 통일된 변화를 불러왔다.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고, 이 ‘분리된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적 역할이 양극으로 분화되었으며, 개인과 사생활이 새롭게 강조되었다. 그 결과 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왜 동성관계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예전의 태도나 관행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하려면, 성애와 가족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 과거에 얽힌 여러가지 신화의 정체를 밝혀 내고, 사회가 그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성애를 만들어 내고 개조해 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1. 원시사회와 비서구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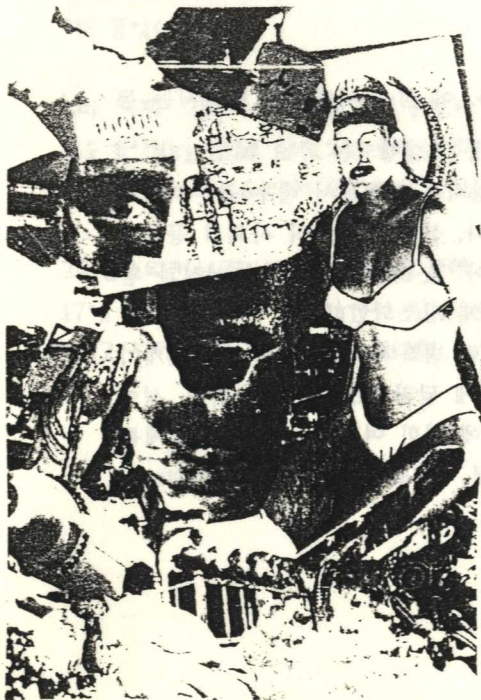
최초의 인간사회는 수렵 및 채집사회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생활양식대로 살아가는 몇몇 사회를 살펴보면, 그 곳에는 (근친상간을 제외하면) 성 행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보적인 경작과 소 양을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이나 친족 제도가 더욱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영토와 가축을 얻기 위해 지역공동체들끼리 경쟁하게 되면서 전쟁이 생겨났으며, 성별 역할분담도 더욱 뚜렷해졌다. 그래도 그런 사회는 오랫동안 계급구분이 없고 결혼과 양육의 형식이 유동적이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평등주의 사회를 계속 유지했다. 거기에서 인정받던 동성관계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발견된다.

첫번째 형태는 성 역할의 전환이다. 이성이 하는 일을 더 선호하는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 족장의 허락을 받은 후, 그런 성 역할의 기초를 습득하여 자신의 생물학적 성보다는 후천적으로 습득한 사회적 성에 따라 모든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여성' 혹은 '남성'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런 역할에 맞추어 남편이나 아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사회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던 동성관계의 두 번째 형태는 남성들과 소년들간의 섹스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남성이 성장해 가는 한 단계로 여겨졌는데, 그 소년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이번에는 그가 사회로부터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은 채 소년 애인을 얻게 되는 것이다. 리비아 사막의 시와족 사이에서는 남성들과 소년간의 섹스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연령대가 같은 남성들간의 섹스는 그렇지 못했다.

계급사회에서 여성들간의 성관계도 결혼과 가족이라는 기존 제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다처제나 혹은 그와 유사한 관습을 따르는 사회에서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다 동성관계를 허용했던 것은 아니다. 아시리아인이 통치하던 고대 바빌론이나 페르시아(조로아스터교가 맹렬히 반대했다.) 그리고 아즈텍 사람들이 통치하던 페루에서는 남성간의 동성애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동성관계가 뭔가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거나 변태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및 기타 남녀간의 성관계에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듯이, 사회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성관계를 만들어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음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2. 고대 그리스 · 로마 사회

고대 그리스(대략 B.C 500~300)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소년들에게 품는 성적 욕망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서 결혼이나 자녀 양육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어떤 저술가들은 남성들간의 '천상의 사랑'이 남녀간의 '평범한 사랑'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그런 관계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퍼붓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의 각 나라들은 모두 시민계급과 비시민계급 사이에 정치적 불평등을 유지했는데, 그런 까닭에 남성들과 소년들간의 관계가 더 억압적인 형태로 다르게 바뀌기도 했다. 자유시민 사회 바깥에서 고르기만 하면, 성인 남성 '사냥꾼들'이 성적 대상으로서 소년들을 선택하는 것은 비난받지 않는다. 로마는 정복을 통해 노예의 수가 늘어나고 지배계급의 부와 사치가 커지면서 남성 관계의 이중적인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로마인들은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유민 남성들을 곱지 않게 바라보았던 반면, 능동적인 역할이나 남자 노예들을 수동적인 성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편견을 두지 않았다. 노예들은 남자인 여자든, 주인이 직접 사용하던 남에게 빌려주든 간에 완전히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 덕분에 부유한 로마 남성들은 성적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주 넓었으며, 그런 기회를 열광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성관계가 끔찍히도 불평등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법적으로 노예의 승낙이 아무런 상관도 없었기 때문에 남녀 노예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에 들지도 않는 사회였다. 간혹 로마의 법률들이 동성애를 처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법률들은 남녀 자유민들을 보호하고 노예와 자유민 사이에 금을 긋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들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사포(Sappho)의 시 이후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사포는 B.C 600년경에 레스보스섬에 살았던 여성으로, 그녀의 작품은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다. 그녀의 시들은 사랑의 말로써 다른 여성들에게 구애하는 내용으로, 그것으로 보아 당시 레스보스섬에서는 여성들간의 사랑이 공공연히 인정되었던 게 분명하다.

그리스나 로마에서나 지배계급의 부를 만들어 낸 주된 원천이었던 노예제가 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로마에서는 노예가 사치스러운 소비의 한 형태로 통용될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원인이었다. 로마제국 말기에 노예제가 농조제 생산양식으로 영원히 대체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3. 기독교의 역할

고대말 기독교의 출현과 함께 성애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나타났다. 레위기에 사형이 명령된 B.C 6세기부터는 고대 기독교가 남성들의 성관계를 실제로 금지했던 게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레위기의 이 '신성 계율'에서는 간통, 수간 및 결혼으로 인척관계가 된 성인들 간의 성교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성적 죄악들로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을 담고 있다. 한참 뒤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동서에 혐오증의 중심이 되었지만, 정작 거기서는 동성관계를 언급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가 동성관계와 관계있다고 풀이된 것은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면서 부터였다. 그 무렵에 이르러 기독교 및 유대교의 몇몇 저술가들이 유달리 남성들과 소년들간의 관계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앞선 두 세기 동안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제국주의적으로 그리스화하려 했던 것에 대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반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C 164년 유대인들이 승리하여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자 그리스의 문화적인 특성에 대해 물질적으로나 성적으로 더욱 거세게 반발하게 되었다.

예수의 말씀이라고 알려진 복음서에서는 동성관계의 문제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몹시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죽은 뒤 기독교인들의 지도자가 된 타르수스 출신의 바울이 쓴 글에는 남성간의 관계에서 능동적인 역할과 수동적인 역할을 모두 비난했다.

기독교 시대였던 3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은 더욱 목청을 높여 다른 사람들의 성 습관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동성애 혐오증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죄악시되던 방탕한 특정 행위가 비난받은 것이지 특수한 인간 유형이 비난받았던 게 아니다. 게다가 기독교가 비난했던 대상은 훨씬 더 광범위해서 동성관계만이 아니라 생식과 관계없는 모든 섹스를 포함했다. '자연스런' 섹스를 신이 정한 질서나 이상적인 모범으로 본 이런 교리 하에서는 남성들과 여성들간의 오럴섹스나 항문성교, 피임, 낙태 등이 모두 죄악시되었다.

이 자연스러운 섹스라는 생각이 하나의 관념이 된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유대교적 기원 못지 않게 이 전통에서도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지배 엘리트에게 완전한 덕을 갖추라고 권고하는 것과 로마제국의 모든 주민들에게 오직 생식과 관계된 섹스만을 강요하려던 기독교인들의 결정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독교의 사상은 앞선 전통에서 따온 것들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나름의 경로를 따라 발전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상이 로마제국 말기의 문제점들을 설명해 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듯했기 때문이다. A.D 3세기에 로마제국에서는 군대가 패배하고 기근이 나라를 뒤 흔들어 정치적 불안정이 커지고 인구는 줄어들었다. 본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도덕령은 옛 로마의 도시 귀족들에게 결혼과 합법적인 자녀를 갖도록 강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런 상황을 구제해 보기 위해 다시 부활되어 남성들간의 섹스 뿐만 아니라 출산과 관계된 결혼 이외의 모든 관계를 처벌하는데까지 확대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채택한 새로운 정책에는 자식을 낳을 의무를 두어 농민과 장인, 관리들을 대물림시키려는 방침도 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무거운 과세와 거둬진 강제 징발 때문에, 이들 법령은 결국 더 많은 농민들과 장인들을 각각 토지와 도시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을 뿐이다. 정복시대가 마감되기 시작하면서 노예 번식이 일반화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지배계급을 계속 부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다. 당시의 기술수준에서는 노예 번식으로 생산되는 잉여의 양에 비해 노예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더 한층 물질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잘것 없는 기술과 엄청난 과세에 기초한 고대의 방식대로 도시를 부양해야 하는 숨막히는 부담에서 시골을 무조건 구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농노제, 즉 농업 생산자가 영주의 땅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과 자식을 낳을 의무를 기본 원리로 한 일련의 사회, 경제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권리를 얻은 대가로 토지 경작자들은 농노가 되었다.

물론 기독교가 사회, 경제적 개혁 프로그램을 자처했던 것은 아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신들이 나라를 못 구했지만, 기독교의신은 성직자들을 원조하고 그들의 예배에 어김없이 참석하고 기독교의 성도덕 규율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영적이고 신학적이며 불가사의한 설명으로 등장했고, 일반 대중들도 세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한 방식으로 기독교에 의존했다.

외국인의 노동에 그토록 크게 의존하던 제도에서 본국 인구를 그만큼 부흥시켜야 하는 제도로 그야말로 극적인 이행을 했던 경험은 아마 다른 사회에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생식과 관계 없는 섹스에 대해 기독교가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전혀 근거없는 엉뚱한 일이 아니라 기독교에게 권력을 안겨준 시대의 특수한 물질 상황이 낳은 결과였다. 이런 태도들은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 혐오증과는 달랐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따로 제목을 달아 동성관계를 다른 범죄와 구별하는 법률은 서구 어느 기독교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4. 중세의 완화기와 반격

스페인의 서고트인을 제외하면, 새로운 '이민족' 지배자들은 동성관계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물론 성적 수동성에 대한 비난이 남성에게 아주 굴욕적인 일로 여겨졌다는 증거도 있긴 하지만, 그들 전사 문화에서는 남성들과 소년들간의 관계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기독교를 차용하면서 이민족들은 다른 종류의 '자연에 어긋나는' 섹스와 마찬가지로 동성관계에 대해 기독교의 금지령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실제로는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서유럽 역사에서 암흑 시대로 알려져 있는 이 기간은 포격과 잔인한 만행이 난무한 시기였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동성관계에 대한 박해는 없었으며, 이런 느슨한 완화기가 몇 세기 더 지속되었다.

8세기 무렵부터 12세기까지 서유럽에서는 동성관계에 대한 특별한 반발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색(sodomy)'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성적 죄악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시기 내내 수도원과 수녀원에서는 동성들 사이에서 다정하고 열렬하기까지 한 관계가 한창 피어올랐다. 이 시기쯤에는 성행위에 대한 교회의 통제가 사실상 매우 약해져 있었고, 교회의 공

식적인 금지령들도 많이 무시되고 있었다. 1200년에 이르러 경제적 팽창과 사회 변화가 초기 중세 사회의 물질적 제약들을 많이 허물어 버렸다. 인구증가, 경작지 확대, 동유럽 지역의 식민지화, 도시와 무역의 성장등이 장원 영주와 도시의 주교가 지배하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었다. 농민과 장인들이 증가시킨 상품생산은 벌써 개인의 자유를 원하는 압력을 불어넣고 있었으며, 중세의 사회통제 구조를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13세기가 되자 교회와 새로운 군주국가들이 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억누르기 위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중동에서 십자군 원정이 실패로 끝나감에 따라 이번에는 폭력의 화살이 서유럽 내부로 향하게 되었다. 또다시 생식과 섹스가 사회통제 계획의 선두에 내세워졌고, 가족이 전통적인 질서를 강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물론 중세 사회에서는 가족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통제 수단으로서 장원이나 교회, 길드 같은 다른 제도들보다 하위에 놓여 있었지만, 중세말에는 이런 기타 제도들이 흔들리면서 가족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세말에 교회와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벌인 대 공세는 아주 다각적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주로 동성애 혐오증이 발동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다소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셈이다. 거기에는 인류를 무릎 꿇리고야 말겠다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자연세계를 난폭하고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과 더불어 성에 대한 갖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작용하고 있었다. 흉악하고 음란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저지르면 신으로부터 개인적인 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돌림병이나 폭풍, 기근 같은 재앙으로 자연이 응답할 거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동성애적인 특수한 행위였다기보다는 여전히 생식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섹스였다.

5. 르네상스에서 산업혁명까지

르네상스 시대의 동성관계는 동성애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어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이 시대의 서유럽 사회가 남성간의 섹스를 극도로 혐오스럽게 대했으며, "비정상적"인 성에 대해 아주 강한 공포나 반감을 보였다고 한다. 또 다른 역사가들은 동성애가 널리 묵인되어 그 시대의 문학, 예술적 성과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탁월한 인물들이 분명히 동성쪽을 더 좋아했고, 미켈란젤로의 경우 거의 동성애 관계만 가졌다는 것은 오늘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주요 도시들 가운데 어디를 보더라도 남색에 대한 형벌은 무겁게 정해져 있었고, 또한 자주 부과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단이나 마법처럼 남색도 악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신과 자연을 모욕하여 사회 전체에 무시무시



한 천벌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난받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들끼리의 섹스가 기존의 성 행동 구조 속으로 한데 통합되었다. 1649년과 1688년의 부르주아 혁명은 개인의 자유, 특히 종교와 경제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런 삶의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을 눈에 띄게 줄여 놓았다. 이런 점들 못지 않게 깊숙히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런던을 비롯한 17세기말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공장 제조업의 자금력이 증대된 것이다. 공장 제조업에서는 생산이 더 이상 가족에 기초해서 조직되지 않았으며, 직공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형성하고 때로는 파업도 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에 앞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가정과 일터의 분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장체제보다는 가내 방식으로 구성된 제조업 분야와 농업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족경제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노동시간 이외의 사생활이 오랜 가부장적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윌리엄 브라운 같은 사람이 작업장 바깥에서 뭘하든 그건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생각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국가는 이전에 아버지와 가정의 영역이었던 곳을 지키기 위해 발을 들여 놓고 있었다.

17세기에는 남색에 대해 극형을 내린 일이 드물었지만, 18세기말 영국에서는 극형을 내리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주목할 점은 남색에 대한 박해와 처벌이 강화되던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시기가 바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전개되는 결정적인 단계와 맞아떨어졌다는 점이다. 전쟁은 장시간의 노동력을 투여하는 프롤레타리아들을 양산했던 직물공업, 광산업, 금속산업의 성장과 산업자본의 집중을 촉진하였고, 논오자들 다수는 발단을 틈도 없는 빈털털이로 쫓겨나 사생활과 체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시설마저도 박탈당한 상태였다. 유럽의 다른 어느 지배계급도 영국의 지배계급만큼 성적 무질서의 위험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회의 붕괴와 혁명을 겁낼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색자들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을 부채질하는 것은 일반 대중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수작이기도 했다. 부패한 정부에 반기를 들거나 개혁을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때를 지어 남색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더 속편했을 테니까 말이다. 교수형을 당하거나 칼형을 당한 사람들은 사실 상징적인 희생양이었지만, 그들이 상징하던 위험은 이제껏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었다. 이단, 마법, 남색의 낡은 세 요소를 대신하여 이제는 남색, 폭동, 무질서라는 새로운 세 요소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6. 성과 산업화

지난날 농민, 장인, 농업 노동자들의 생산적인 가족과는 달리, 자본주의적인 가족형태는 유독 가정과 일터의 분리에 기초했다. 상품의 생산과 임금의 지불은 자본가에게 속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생활은 따로 떨어진 영역이 된다. 자본주의가 가족단위로 조직된 남성과 여성, 아이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할 만한 이유가 많다는 것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노동력 자체의 재생산에서부터 훈련과 공장 안의 계급서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책무를 통

해 반항적인 노동자들을 고분고분하게 길들이는 것에서부터 자기만족과 개인주의 같은 자본가의 사상을 영속시키는데 이르기까지 그 이유는 다양하게 퍼져 있다. 새로운 산업의 고용주들이 여성과 아이들의 임금이 남성들보다 낮다는 사실도 이득이었다. 산업 자본주의는 가족을 필요로 한다. 그런 까닭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에 실제로 종속될 때에야 자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까닭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이 새롭게 이야기될 필요가 생긴다. 성 활동에 대한 자극인 동시에 일종의 통제수단으로서 말이다. 개인들은 섹스를 통해 일신상의 만족을 얻어 반드시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야 하지만, 이것이 가족과 성 구조라는 성 구조라는 공인된 규범을 벗어나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에는 섹스에 대한 의학 지식들이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합병증과 위험도 강조하기 시작했다. 동성애도 그 가운데 하나로 동성애를 성적인 퇴화로 규정하여 동성애를 적대적인 형상으로 꾸며 냈다. 의학계의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가 일종의 정신이상이거나, 아니면 유전적 질환의 징후인 선천적 결함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동성애를 병리학적인 문제로 간주했으며, 만에는 중립적이고 과학적으로 서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 속에도 '도덕적 퇴폐' 같은 비난조의 표현이 계속해서 슬그머니 기어들어갔다.

인간의 모든 성 활동이 그렇듯 동성관계 역시 일련의 자연스런 사실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결혼적령기나 결혼, 출산의 문제처럼 이 문제도 여러 사회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으며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생산양식과 계급구조와 특수한 역사적 조건으로 구체화된 더 넓은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구축된 성이 없었다. '게이'나 '정상적'이라는 자기 규정들도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여성간의 사랑, 자매애, 그리고 ㅅ

「섹스 포르노 에로티시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서동진 外, 현실문화연구) 中

-전략-



여고나 여대에서는 동성 친구간의 긴밀한 유대감이 존재한다. 선후배간에 S언니를 정하지 않아도 동성 친구는 모든 행동을 같이 하는, 심지어는 화장실도 같이 가는 식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 함께 밥을 먹어야 하고 삶을 계획해야 하고....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레즈비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것은 언제든지 파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들 속에 있는 동성애적 기질은 결혼과 동시에 끝나버린다. 결국 이들에게 자신 내부의 동성애적 성향을 인식할 틈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털어놓는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시절 한명의 동성 친구와 줄곧 붙어다녔죠. 아주 각별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남자 선배들이나 동료들보다 여자 친구들과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레즈비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워요. 내가 레즈비언이 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억압에 대한 돌파구로써 동성간의 사랑은 커다란 의미를 준다. 이러한 자매애는 혹은 여성과 여성간의 새로운 관계는 남성이 지배구조에 대한 발언이기도 하며 권력의 역학 관계가 배제된 새로운 인간관계를 제시해 주는 긍정적인 역학 모델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회화 된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전통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언어의 사용과 문화적인 관심 그리고 삶에 대한 방식을 자연스럽게 인정해 버리는데 이것이 호혜적인 “다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열의 다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회화에 의해 여성 주체 혹은 여성성은 열등한 것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언어는 공적인 영역에서 추방되며 사적이고 하찮은 그 무엇이 돼 버린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들의 의식, 무의식을 짓누르는데 여성들이 종종 침묵하고 더

듣거리며 자기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있다.

여성들은 공적인 언어를 두려워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여성을 침묵하게 하거나 공적인 언어 자체를 방기하는데 이것은 공적인 것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가장 적극적인 혹은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언어는 말갈지 않은 말로, 왜곡되고 소외된 채 내송 또는 수다란 이름으로 사적영역에서만 머물러 있다. 결국 말하는 여성의 주체로 작용한다.

-중략-

여성들은 결혼을 한다. 부부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부부관계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관계 이상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란 성적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생물적인 관계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성행위에 대한 공포에 걸려있고 대다수가 불감증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결혼 생활 몇십년이 지난 중년 여성에게조차 지나친 성기중심적인 성행위는 불편하고 힘겹다. 그들은 오히려 성행위 이전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애무와 속삭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지나치게 강요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상상했는데, 결혼 후의 남성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성은 깨어질 수 없는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 도대체 거부할 수 없다, 남자친구와 떨어져 있거나 남편이 부재중에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낀 여성들도 있다. 남녀의 성에 관한 의식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과 사귀게 되고 심지어 동갑과 데이트를 할 경우에조차 그들은 육체적인 접촉에 대한 심한 갈등과 억압을 경험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화속에 나타나는 여성들 대부분은 성에 굶주린 혹은 성적 호기심으로 폭발할 것만 같은 사람들로 그려진다. 영화나 책에서 배운 것들과 자신과의 심각한 분리현상은 그들의 삶 자체를 힘겹게 뒤흔들어 놓는다.

또한 부모나 사회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며 여성은 그런 강요를 항상 곱씹고 있는데 정적 남자는 섹스를 원한다. "우린 사랑하잖아" 그 한마디면 족하다.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어 존재한다. 도저히 낭만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뛰어넘을 수는 없다. 낭만적인 사랑이란 자본



주의가 스스로를 유지하기엔 편리한 핵가족제도를 유도하기 위해 대가족 제도에서 뛰쳐나와 낭만적 사랑을 통한 결혼을 부추겼다는 설명만으로는. 그리하여 낭만적인 사랑에 기초한 이성애 중심주의의 해체란 자본주의의 붕괴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명확하지가 않다. 사실 요즈음 사랑이라는 것은 출산보다도 더한 억압으로 작용한다. 여성은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문화를 창조해 내지 못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레즈비언이 된다는 것은 낭만적 사랑, 로맨스 문화 이런 식의 억압으로부터 탈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셈이다. 그러나 나는 레즈비언이 대안이라거나 돌파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성애적 관계가 갖는 억압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그러한 비판의 준거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레즈비언이즘은 충분한 미덕을 가지고 있다.

성은 남성과 여성,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것,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처럼 자기 정체성 내지는 자아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때 자연적인 성은 남성과 여성간의 구분에 대한 가정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동성간의 사랑은 비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성이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다양한 언어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도대체 성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의 구분조차도 섬세하게 따져보면 사회적인 산물이며 역사와 더불어 변화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간의 사랑만이 본질적이라고 말할 어떤 근거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레즈비언이 갖는 정치성이란 여성을, 성기중심적인 남성의 성 속에서 강제되어 왔던 이성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당신은 무엇인가에 억압받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어쩌면 스스로가 미리 재단하여 억압받고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가피한 외부적 상황에 의해
억눌림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압?! 억압이라고?

나한테 그런 경험이 있었던가 한번 짚은 되짚어 보시겠조?

가장 간단한 예를 몇개 들어볼까요?

당신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와 함께 길거리에도 나서지 못할 정도로

온갖 종류의 가공할 법적, 심리적 차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재미, 재일 교포들이 현지에서 겪는 법적, 사회적 차별에 분노하고 비난하지만,

이땅의 해외불법취업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억압과 경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은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대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편하다고 느낄지언정
부당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들에 대해 포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가족과도 사이가 좋기 때문에

본인만 참으면 잘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중 몇몇은 서로가 불행해질 것이 뻔한 결혼도 하고

철저히 버리고 주변의 것들에 의해 살아감을 감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여자라서, 남자라서, 아내라서, 남편이어서, 딸이어서, 아들이어서, 장남이어서, 장녀라서

자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포기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 참는다면 벌집썩신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을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참고 견디어 내지 않았나요?

나 하나 희생하자라고.

이렇게 말해도 '그건 경우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어쩌면 개인주의화된 요즘의 문제점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구요.

자신의 생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시도입니다,

우리모두 담합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모두가 누릴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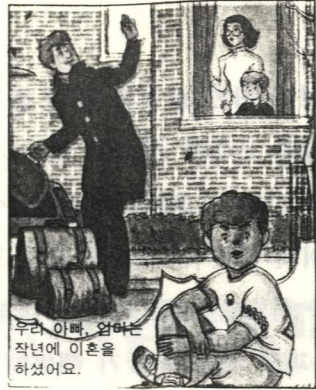
이 논의도 그 과정속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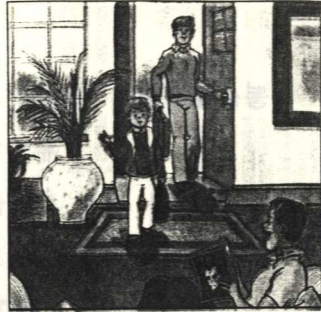
그러한 권리에 대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Daddy's Roommate

by Michael Willhoite



우리 아빠, 외하는 작년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빠의 집에는 누군가가 있어요...



아빠와 아빠 친구 프랑크는 같이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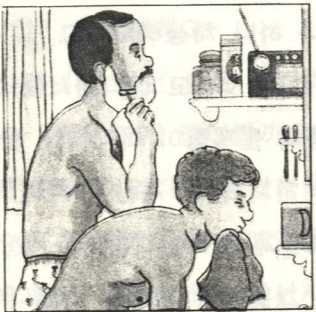
같이 청소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고...



같이 면도도 하고...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언제나 곧 화해를 하지요.



저도 프랑크를 좋아해요...



아빠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어떻게 벌레를 잡는지도 알려주고...



책도 읽어 주고...



아주 큰 버터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못된 귀신도 쫓아 내 주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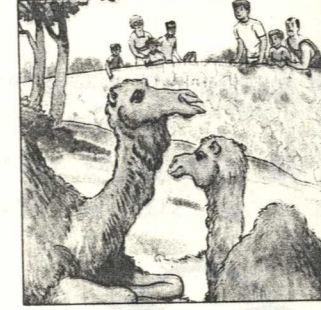
주말이면,



우리는 어러가지 일을 같이 해요.



야구 경기를 보러가기도 하고...



동물원에도 가고...



해변에도 가고...



뜰에서 일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피아노 앞에서 같이 노래를 해요.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아빠와 프랑크는 게이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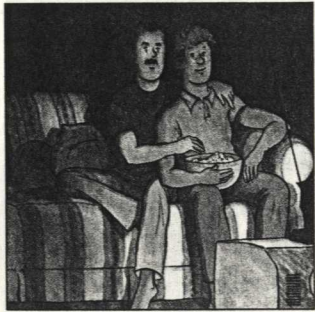
처음에는 그 뜻을 알지 못하였으나,
엄마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게이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사랑은 가장 큰
행복이구요...



아빠와 프랑크는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저도 행복하구요...



(다음 인터뷰는 서울대 동성애자 모임 마음003이

서울대학교 96학년도 동아리연합회 회장선거에 나온 두 후보와 함께한 것입니다.)

@ 이제부터 인터뷰 시작입니다. 보통 인사를 먼저 하지요.

안녕하세요? 하하 기분이 좋군요. 늘 인터뷰를 받기만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 감
개가 무량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잘 대답해주시길...

A : 안녕하세요. 괜히 긴장이 되네요.

B : 안녕하세요. 무식한 것이 탄로 날 것 같아서 떨리는군요.

@ 마음 001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A : 알지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시지를 한번 보았고, 포 대자보가 붙었다고 들었고 그 정도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것은...

B : 저도 마찬가지죠. 직접 자보나 소시지를 본적은 없고 들어서만 알고 있었고 신문에 난 기
사는 보았고. 음... 아직은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시지가 그런 다가섬의 노
력이 겠지만...

@ 예, 뭐 그냥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당신은 이성애자입니까?

A : 그런 것 같습니다.

B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행이군요. 이 코너 이름이 이성애자와의 인터뷰이었으니까요... 그럼, 자신이 왜 이성애자
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선택이라기 보다는 주어진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학적인 조건과 사회적 통념으

로 인해 강화...? 왜라는 질문에는 잘 대답할 수가...

B : 같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동성애에 대한 지식이나 뭐 그런걸 별로 접할 수 없었고, 일 반적으로 사회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져져지고... 지배적이진 않겠지만 후천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요?

@ 그렇다면 당신의 이성애 성향이 선천적인 것이라고 보십니까, 후천적인 것이라고 보십니까?

A : 선천적인 조건이 분명히 있겠지만 후천적인 측면이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에 대한 경향을 느낀데도 수치심으로 억제를 하려고...

B : 완전히 선천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역사적 과정에서 사랑의 형태도 바뀌어 왔고 지배적 인 것도 달라져왔고...

@ 그렇다면 자신의 이성애 성향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A : 친밀도라는 면에서 여학생에게는 남자 친구들과 다른 것 같았죠...

B : 고등학교때 여학생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 부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이성애 성향을 알고 계십니까?

A :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조금은 기분 나쁜 듯한 어투)

B :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계시겠죠? (역시 조금 기분나쁜 듯한 어투)

@ 이성간의 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관계를 억누르게 될 것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 설정이 어느 정도 친해지면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역시. 그래서 사 회적으로 억누르게 될 테죠.

B : 역시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성간의 사귀는 곧 결혼으로 연결된다고 사회적으로 인 식되고, 그런 시각을 저항의식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힘들게 거부하기 도...

@ 그럼, 사랑과 우정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어, 잠깐 생각을 좀 해보고... 우선 책임관계가 틀려지고, 삶에 대해 더 깊게 관심을 할테고, 성적인 관계가 관련되지요.

B : 같은 연장선 상에서 여기까지는 우정, 여기서 부터는 사랑 이런 식의 대립관계는 아닐 것 입니다. 다른 부분인거죠. 물론 같이 수반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되도록 오래 같이 있고싶어하고 독 점적으로 되고 자아실현에 장애가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우정 friendship 과 성적인 sexual 한 감정과의 차이는 뭘까요?

A : 분명 생물학적인 부분이 개입하게 되려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경험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넘나드는 부분이 있지만 구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B : 두가지 모두 인간에 대한 신뢰에 바탕하고 만나서 좋고 같이 있고 싶고... 근대에 들어서 구분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던것도 같고. (일버무림)

@ 네, 지금까지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상의 질문들은 동성애자들이 빈번히 받게 되는 질문들에서 단어만 이성애로 바꾸어 질문을 한 것이었는데요. 뭐 정답이 존재한다기 보다 그 질문들이 담고 있는 함의를 후보들께서 역질문을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동성애자는
비록 작은 목소리이지만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총여학생회, 대학문화 교지편집실, 신문사 등의 학우들과,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학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분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 행사를 주최하시는 총여학생회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 동성애자 모임은 시립대의 모든 동성애자를 위한 모임입니다. 저희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크게는 성적인 또는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소외와 억압의 굴레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모든 동성애 성향을 가진 분들의 참여가 자유로우며, 개인의 커밍아웃은 완전히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저희는 단지 언젠가는 자신을 밝힐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로 도움을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굴레들, 이 굴레들을 인식하는 일은 동성애 운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 변혁 운동의 시초입니다. 특히 동성애자가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이 억압받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동성애 운동에서는 가장 큰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향을 인식하더라도, 이를 쉽게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하고 무서워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동성애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성향을 밝히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존중해야 한다 말했을 때, 어떤 이들은 우리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변호한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이들 앞에서 외쳐야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가 언제나 커다란 벽으로 남지만은 않을 것이며, 머지 않아 동성애자들이 '다르지 않게' 살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확신을 버릴 수 없기에 슬프지만 우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요구들이 부딪히게 되는 벽들, 그 벽들은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당연

한 근거들을 내세우더라도, 항상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회가 동성애를 왜 그리도 죄악시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떠한 설득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동성애 공포증(Homo-phobia)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가, 사회가 동성애자를 소외시키기 위해 만든,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로 했을 때, 왜 그리도 많은 멸시와 조롱의 말과 눈빛들이 쏟아지는지. 많은 이들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소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행위들이 동성애자에게는 더없이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절대 잔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그릇된 구조와, 그 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잔인한 동성애 공포증을 탓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진정한 '이상함'을 고쳐가기 위한 발걸음에 모든 분들이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성애자의 입장에서 동성애란 말을 직접 꺼낸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숨가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성애자는 비록 작은 목소리이지만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으로, 동성애자가 동성애자로 살 수 없었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미 우리는 동성애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숨쉬며 우리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서울시립대 동성애자 모임
대표간사 양지웅**

저희의 뜻에 동참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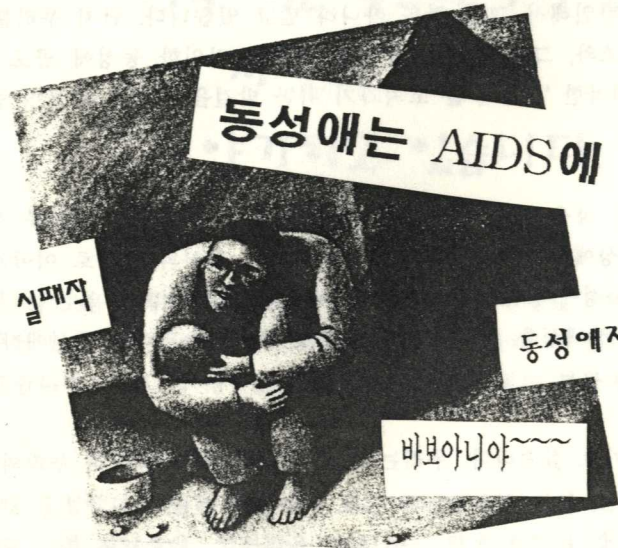
서울시립대 동성애자 모임

연락처; 215-7884, 015-454-7884

나랑 전혀 상관 없는 사람.

어려운 때 강간당한 사람이래~~~~

우웬



동성애는 AIDS에 걸릴 확률 99.9%

신의 실패작

동성애자? 너무 불쌍해.

바보아니야~~~~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항문성교하는 사람...드러워!

으..변태!!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과연 그럴까요?

'96 열린대학으로 오셔서 확인하세요